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귀숙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멀리서도 커다란 탑이 보여. 삼촌과 나 성훈은 각자의 그림자를 밟으면 광장을 질러가고 있어. 탑 앞 쪽에 커다란 재단이 있고 누군가 방금 분향을 했는지 향냄새가 진하게 나. 할아버지 제사 때 맡았던 냄새와 같아.

“자, 향을 집어서 향로에 세 번 넣는 거야.”

삼촌은 시범을 보이고 사진 찍을 자리로 갔어.

내가 향을 넣고 물러나자 성훈이는 주먹이 넘치도록 향을 집어 옮기며 내게 눈짓을 해. 장난을 치는 것이지. 이종사촌인데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야. 향로 주변에 향이 쏟아졌어. 그래도 나란히 서서 묵념할 땐 조용했어. 그 사이 삼촌은 사진을 찍었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 묵념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

삼촌은 한 달 동안 성훈과 나를 맡은 책임자야. 체험학습과제를 할 장소로 5·18묘지를 선택 했어. 우리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툭툭거렸지. 너무 더웠거든. 삼촌은 사진만 얼른 찍고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약속했어. 내내 미루던 과제를 오전 중에 꼭해야 돼. 오후에는 기차를 타야 되니까.

우리는 탑 아래 그늘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

“공동묘지네.”

성훈이 소리쳤어. 컴퓨터 검색을 잠깐 해봤었어. 하나의 사건에 이렇게 많은 묘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어. 묘지들 사이에 섰어.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 대리석으로 된 비석을 만져보니 계란프라이라도 될 정도로 따끈해. 초록 봉분(묘에서 둥그렇게 올라온 부분)들 위로 햇살이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려. 삼촌은 성훈과 나를 중심으로 이 쪽 저쪽 사진을 찍느라 바빠.

“알프, 5·18이 뭐야?”

“그것도 몰라?”

통명스런 대답이 나왔어. 성훈이 즐겨 부르는 알프는 영어학원에서 부르는 알프레드를 줄인 말이야. 성훈이는 작년까지 평범한 동생이었어. 외동아들이라 나를 잘 따르고 좋아하지만 귀찮을 때도 많았어. 나는 엄청 공주인척하는 두 살 아래 동생이 있어. 공주 오빠 노릇하는 것도 힘든데 형 노릇하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친척들 사이에서 은근히 비교되고 있어.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읽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

“80년 5월 18일 광주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대.”

“민주화운동? 어떻게?”

또 시작이야. 질문 때문에 날씨가 더 덥고 더 뜨겁게 느껴져.

“삼촌!”

삼촌을 불러주고 나는 앞으로 걸어와 버렸어. 사실은 삼촌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어. 광주에 내려 온지 일 년이 조금 지났고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바빠서 여기 와 본적도 없다고 했거든.

묘비 앞에 네모로 된 작은 상이 있는데 술잔 같은 걸 올려놓는 곳 인가봐. 거기에 흩어진, 종이로 만든 꽃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던 여자가 일어섰어. 가슴에는 이름표가 붙어있어. 설명해주는 선생님 인가 봐. 손에는 하얗고 빨간, 못생긴 꽃들이 들려있어.

“한참 더운 시간에 왔구나.”

길이 막힌 나는 걸음을 멈췄어.

성훈이 성큼성큼 몇 개의 묘를 지나왔어.

“이게 뭐예요?”

대뜸 질문부터 해.

“유치원 친구들이 만들어서 헌화 한 거예요.”

“헌화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꽃들 몇 개를 성훈이 집어 들어 살폈어. 내 눈에는 꽃 같지도 않은데 성훈이는 예쁘대.

“여기.”

성훈이 가리킨 것은 사진을 넣는 타원형의 작은 액자였어. 다른 묘지에는 사진이 들어있는데 유독 그 묘지는 얼굴이 아니라 무궁화 꽃 사진이 들어있어. 성훈과 나는 동시에 선생님 얼굴을 쳐다봤지.

“내년이면 삼십년이 되요, 이 분이 돌아가신지. 그 땐 사진이 아주 귀했어요. 기념해야할 날에 만 식구들이 다 함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지요. 이 분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초등학교 사학년이었어요. 군인들은 그 작은 몸에 여섯 방의 총알을 쏘았어요. 사학년이면 키가 이만 했겠지요?”

선생님은 자신의 가슴계를 가리키며 눈은 수많은 묘지들을 바라보았어. 문득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해왔어. 나는 성훈이를 보았어. 지금 사학년이거든. 눈동자가 커다래졌어. 놀랐나봐. 수다스런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사진이 한 장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무궁화로 대신했어요. 묘지를 돌아 보면 간간이 사진 대신 무궁화가 보일 거예요.”

선생님은 나가는 길에 자료를 챙겨가라며 묘지를 내려갔어. 사진을 찍던 삼촌도 무궁화를 바라보더니 다시 셔터를 눌렀어.

“군인들이 왜 어린이에게 총을 쏘았지?”

나는 고개를 흔들었고 성훈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어.

우리 셋은 다시 탑 아래 그늘로 들어와 묘지를 바라봤어. 성훈은 더 이상 툄툴거리지 않았지. 좀 멍한 상태인데 총알 여섯 방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모르겠어. 사실은 여기 올 때 속으로 나도 툄툴거렸거든. 성훈이 앞이라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더위를 감수할 만큼 체험학습과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어. 사진 몇 장 찍어 그럴싸하게 보고서를 쓰면 돼거든.

작년 겨울방학 체험학습도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잘했다고 칭찬했지. 느낌을 잘 썼다고. 하지만 가난한 산동네를 가보자는 건 엄마 의견이었고 정리하고 붙이는것도 엄마가 했어. 느낌? 솔직히 책에서 읽었던 글을 쓴 거야. 너무 춥고 지저분한 골목에 서있기도 싫었어. 차를 아래에 주차시키고 이십분도 넘게 걸었거든. 이미 책에서 그런 곳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새로울 것도 없었어. 다만 이런 과제를 왜 해야 되는지 짜증이 났었지.

오늘은 좀 달라. 나는 그 묘가 어디 쯤이었더라, 가늠해보는 중이야.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겼어. 이번 체험학습보고서는 꼭 혼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궁금해 졌거든. 아이스크림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드디어 서울로 돌아간다.”

기지개를 켜며 나오는 시원한 말을 옆 자리에 앉은 성훈이는 섭섭해 하는 표정이야. 사진관에 메모리칩을 맡기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왔어. 한 시간이면 사진이 나온대. 성훈은 배가 고프다며 제일 양이 많은 세트를 시켰어.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알프, 나 안 보게 돼서 좋아?”

“그래, 좋아죽겠어.”

*

“그럼 이모한테 말해서 개학 일까지 남은 일주일을 알프 집에서 지낼까?”

내가 주먹을 치켜들자 성훈은 피하는 척 별뿔 일어나더니 진열된 장난감을 보고있어.

“너희들 간다니까 나도 살 것 같다.”

삼촌도 웃으며 말했어. 햄버거가 나오자 성훈은 코를 벌렁거리며 행복한 돼지 흉내를 냈어. 콧구멍이 굉장히 넓어지는 필살기 주특기거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성훈과 나는 바로 광주로 내려왔어. 삼촌에게 영어와 수학 선행 학습을 하게 하려는 엄마의 방학 프로젝트 때문이었지. 삼촌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학원 강사였고 광주에 분점을 내려고 직접 내려와 있어. 엄마는 거의 한 달을 외국연수 가야되는데 내 공부가 맘에 걸렸나봐. 은근히 자유로운 방학을 기대했는데 꿈쩍없이 성훈이랑 둘이서 삼촌 시간에 맞춰야 했어. 수학과 영어를 하루 세 시간씩 공부했어. 자매는 닮는다, 뭐 이런 옛말은 없나? 이모는 우리엄마처럼 공부 공부 하지 않았었어. 성훈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약해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졌거든. 나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성훈이는 미니어처로 고궁을 만들며 놀았거든, 이모의 든든한 지원으로. 그런데 성훈이가 사학년이 되자 마음이 바뀌었나봐. 아니면 이모의 정신세계가 급속도로 늙어 우리엄마와 맞먹게 됐는지도 모르지. 아니 아니 성훈이 머리가 비상하다는 걸 알아버린거야. 어쨌든 귀찮은 혹은 떼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기차 안은 한산해. 앞자리가 비어있어 거기에 가방을 놓기로 했어. 삼촌은 몇 번씩이나 주의 사항을 말하고 있어. 꼭 종착역인 용산역에서 내려야 된다. 성훈이를 잘 돌봐야 된다. 성훈이는 형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화장실은 저 쪽이다. 등등, 잔소리가 길어지고 있어. 성훈이 삼촌 목에 메달렸어. 나는 세 번째 타보는 기차라 걱정없어. 삼촌은 성훈이 ‘옥’ 소리를 내도록 힘껏 안아주었지. 내게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 삼촌이 나를 어른 취급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하긴 한 뼨만 자라면 삼촌 키를 따라 잡을 거야. 기차가 출발하려나보다. 음성안내가 나오고 긴 신호음이 들려. 삼촌은 기차에서 내렸어. 세 시간 반 후면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엄마와 이모를 만나. 성훈이 유리창에 대고 손을 흔들어. 삼촌이 점점 작아졌어.

“기차 타봤어?”

“응.”

“혼자서도?”

“응.”

“나는 기차 처음 타보는데, 멀미 안한다는 말 정말이지?”

“그래, 기차는 멀미 안해.”

기차는 벌써 도시를 벗어나고 있어. 창밖이 온통 초록색이야.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 성훈은 삼촌 따윈 다 잊은 듯 이모에게 보고 싶다고 난리야. 초록색 눈 위로 내리는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져있어. 통로로 아저씨가 손수레를 밀고 왔어. 먹을 것이 많아. 과자와 음료수를 샀어. 엄마는 기차 안에서 먹는 삶은 계란 맛이 일품이라 했지만 성훈도 나도 계란은 사지 않았어. 전에 먹어봤는데 엄마가 강력 추천한 삶은 계란은 딱딱하기만 하고 맛이 없었어.

과자를 먹으면서도 계속 하품을 하던 성훈이 졸린다며 눈을 감았어. 나는 삼촌이 인화해준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어. 사진은 잘 나왔어. 차례로 넘겨보던 나는 웃음이 나왔어. 성훈은 자신이 찍히는 사진마다 장난을 쳐 놓았지 뭐야. 다리를 한 짝 들고 있다거나 내 허리 옆에 주먹이 나오게 했거나. 다음 장은 묘비와 무궁화가 찍혀있어. 기차는 계속 초록 위를 달리고 있어. 사진을 밀어 놓고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 열 한 살짜리 아이가 왜 총에 맞아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

선잠을 깬 듯 성훈이 눈을 비비며 뭔가 망설이는 듯 멍기적 거려.

“왜?”

“화장실 . . .”

“저쪽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있어. 갔다 와.”

“같이 가.”

“갔다 와.”

“형 . . .”

이럴 때만 형이라. 한 살 차이로 자기 기분 내킬 때는 형이고 만만하면 알프라 부르지.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찌질한 자식.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머리 좋은 자식으로 소문이 났어. 어릴 때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질문이 많아졌어. 근래 들어 성훈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아는 그야말로 책에나 나오는 머리 좋은 아이인 것을 나도 인정하게 되었지. 그럴수록 알미워.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을 다녔고 책도 많이 읽었어.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적이 안 오르는, 키만 쫓쫓한 나보다는 머리 좋은 성훈이가 더 좋은지 엄마는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해.

“가자.”

성훈을 앞세우고 통로를 빠져 나왔어.

기차는 흔들림도 없이 가고 있어. 객차의문을 열고 나가자 에어컨 바람하고는 다른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화장실에는 사용가능하다는 불이 들어와 있어. 화장실 문이 잘 안 열리는지 끄 소리를 내며 성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어. 화장실 앞에 서있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야. 작년 여름 우리 집 공주와 할머니 집에 오일 정도 있게 되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할머니 안 계실 때는 화장실 앞에 서있어야 했어. ‘오빠! 거기 있지?’ 간간이 하는 확인에 대답을 해가면서.

“기 성훈, 빨리나와.”

자식이 대답도 안하네.

“나 먼저 자리로 가버린다.”

뭐야, 이 자식.

화장실 문을 확 열었어. 순간 내 몸이 화장실 안으로 빨려들면서 뒤에서 문이 탁 소리를 내면서 닫혔어.

성훈이 어디 갔지 하는 걱정과 동시에 어딘가로 내동녕이 쳐졌어. 그렇지만 나는 배운 적도 없는 낙법으로 풀 쇠에 떨어졌어. 몸을 일으키자 기차가 벌써 저만치 가고 있어. 주변을 둘러봤어. 이제 갓 모내기를 했는지 연두색의 어린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사방이 논이고 철길 너머 멀리 마을이 보여. 기차가 막 그 마을의 산자락을 돌아갔어. 성훈이, 성훈이는 어디 갔지. 삼촌이 성훈이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무작정 마을 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걸었어. 아니 뛰었어. 뛰다가 멈춰 넓은 들에 대고 큰 소리로 성훈이를 불렀어. 아무 대답이 없어. 무서워졌어. 못 만나면 어떡하지. 힘껏 달려 마을 어귀까지 왔어.

마을과 들판을 제법 큰 길이 가운데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놓았어. 한 참을 걷다가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 저쪽 담벼락에 기대고 성훈이 퍼질러 앉아있어.

“성훈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얼른 문지르고 뛰어갔어.

“형 . . .”

성훈은 무릎이 깨져 피가 나고 있었어.

“우리 어떻게 된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이 깨져있어서 아픈 다리로 여기까지 왔다며 눈물을 글썽였어. 나는 남방 자락으로 피를 닦고 후후 불어주었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돌담이 길을 따라 쪽 이어져 있어. 집집마다 책에서 보았던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 우린 과거로 왔나봐. 사람을 만날 때 까지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했어. 그러다 보니 마을 끝 까지 나왔어. 그 때서야 사람 소리가 들렸어. 마을 끝에 있는 동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나서지 못하고 담벼락 끝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어. 한 아이가 소나무에 얼굴을 묻고 외쳤어. 술래 인가 봐.

“시작한다.”

그러자 나무 뒤에서 수풀 뒤에서, 묘지 뒤에서, 언덕배기 뒤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

“그래,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 . . . 니”

술래가 커다란 소나무에 얼굴을 묻고 소리치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움직이기 시작했어.

“ . . . 다.”

소리와 함께 고개를 획 돌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었어. 엎드린 아이, 둘이 부딪쳐 서로 잡고 있는 아이, 한 발을 든 채로 서있는 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수 봤어”

술래가 고개를 돌리자 술래에게 거의 다와서 제때 멈추지 못해 넘어진 아이가 짜증을 내며 술래 손을 잡았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놀이에 움직임이 술래에게 들켜 술래 손을 잡은 아이들이 늘어가고 더러는 다른 친구가 구해줘서 살아나기도 했어. 성훈과 나는 학교에서 배웠던 술래 놀이를 저렇게 재미있게 한다는 걸 놀라워하며 보고 있었어.

“형, 우리도 하자고 할까?”

성훈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잊어버렸나봐. 마을 쪽에서 청년 두 사람이 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 우리를 보고도 무심히 지나쳤어.

“정수야! 야! 니들 다 이리 와!”

한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여덟명의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왔어. 그 중 정수라는 아이의 형 인가봐.

“정수야, 친구들이랑 집으로 들어가.”

“왜? 해 질려면 멀었는데.”

“아침에 아버지 얘기 들었지. 시내에 군인들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잡아간다고. 그 군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 다들 집에 들어가.”

“치, 여긴 시내하고 멀어.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이 아무나 때리지는 안을걸.”

정수라는 아이는 지지 않고 형에게 맞서고 있어.

“그래, 군인아저씨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다른 아이가 말했어.

“지금 시내에 있는 군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군인과 달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데 명령하는 사람들이 좋은 군인이 아니거든. 자기 아버지 같은 어른을 때리고 누나 같은 사람에게 총을 쏘는 사람들이지. 어서 집으로 들어가.”

“형도 나다니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랬잖아. 학생들은 집을 뒤져서도 잡아간다고. 형은 어디가는거야?”

“아버지가 물으면 민수 형이랑 도서관 갔다고 해줘.”

두 청년이 걸음을 옮기려하자 정수가 형의 손을 잡았어.

“자식, 눈치가 구단이네. 정수야, 형은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용기이고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용감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형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형은 도서관 간 거야. 알았지.”

눈을 찡긋해 보이며 두 청년은 산자락을 감싸고도는 큰 길을 따라 가버렸어. 아이들은 잠깐 소문에 대해 얘기하다가 다시 술래를 정하고 놀이를 시작하려했어.

성훈이 불쑥 뛰어나갔어. 나도 따라 일어섰어. 아이들이 우리를 보았어.

“나도 놀이 시켜줘.”

“넌 누구야?” 한 아이가 물었어.

“저쪽,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왔어.”

성훈이 제일 멀리 보이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아, 그 할머니네. 차가 끊겨서 서울 못 갔다며.”

“맞아. 나는 성훈이야. 여긴 알 . . . 아니 형이야”

성훈이 역시 머리가 좋아. 저렇게 둘러댔 생각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놀이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고는 조금 달랐어. 성훈이 술래에게 들켰어. 내가 걸리지 않고 다가가 술래 손을 쳐서 성훈을 구해 주었어. 다른 아이가 나를 구해주기도 했어. 정수가 성훈을 구해 도망쳤어. 성훈이 정수의 뒤통치를 밟아 신발이 벗겨졌어. 정수는 잡았던 손을 확 뿌리치고 고무신을 주어 들었어.

“야, 우리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거야. 살려주니까 신발이나 밟고. 이제 안살려 줄거야.”

정수는 신발에 들어간 흙을 털어냈어. 성훈은 처음 보는 고무신이 신기한 듯 만져보려고 했어. 정수가 쥔싸게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

“형! 형은 잘하는데 형 동생은 영 아니네.”

성훈은 여러 번 술래 손을 잡아야 했어.

“무궁화 꽃이 피었 . . . 습 . . . 니다.”

성훈은 멈추질 못하는 거야. 매번 내가 구해 주었어. 하지만 끝내 술래가 되었어.

따양 따양 멀리서 요란한 총소리가 한동안 들렸어. 하지만 조용해 졌어. 주춤했던 아이들이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고 아우성이야. 성훈이 두 팔로 눈을 가리고 아릅드리나무에 이마를 댔어.

“시작한다.”

“그래. 시작”

성훈이는 술래에 재능이 있나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 . . 다.”

두 명이나 걸렸어.

“무궁화 . . . 꽃이피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다’ 소리가 날지 몰라 망설이다 성훈이 눈에 걸려들었어.

탕탕탕 총소리가 났어. ‘ . . . 다’ 소리에 멈춰선 아이들처럼 모두 제자리에 멈춰섰어. 다시 탕탕탕 아이들이 이리 저리 뛰어가 몸을 숨겼어. 나도 멍하니 서있는 성훈을 나무 뒤로 끌고 가 아릅드리등치에 바짝 엮드렸어. 아래쪽으로 언덕진 곳에 엮드려 있던 정수와 눈이 마주쳤어.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알수가 없어. 정수가 몸을 살짝 일으켰어.

“그냥 있어. 정수야. 그냥 있어”

소리치는데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다시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 총알이 정수의 허벅지를 맞췄어. 또 한방 또 한방 . . . 정수는 쓰러졌어. 우리는 기어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박았어. 총소리가 멎었어. 너무 고요했어. 고요함이 무서워 눈물이 났어.

한 친구가 소리를 내 울기 시작했어. 성훈이도 울기 시작했어. 정신이 돌아온 친구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어. 누구도 정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숨은 자리에서 울었어.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 친구들은 가족들을 붙잡고 더 크게 울었어.

그때서야 큰 길에서 동산 쪽을 바라보고 서있는 군인들이 보였어. 정수는 쓰러져있었어. 오른 손 끝이 벗겨진 고무신을 향해 뻗쳐있었어.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다줬다는 고무신. 정수는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일으켰나봐.

“성훈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성훈이 손을 이끌고 왔던 길로 들어섰어. 군인들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동산을 벗어나 돌담길을 살금살금 걸어 골목으로 숨어들듯 들어갔어. 골목은 구불구불했어. 우리는 그 길이 큰 길로 나가는 지름길로 생각되었어. 골목 끝에 다 왔을 때였어.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 숨을 죽이고 담벼락에 붙어 섰어.

“우리끼리 오인 사격이 뭐야.”

각 가래침 뱉는 소리가 났어.

“사상자가 꽤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 동네에 대고 화풀이 할 건 뭐야.”

“시끄럽게 됐습니다.”

왔던 골목을 되돌아 나왔어. 큰 길로 나올 때 까지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어. 큰 길에서 다시 논길로 들어서서 얼마쯤 오다 되돌아보니 멀리 군인들 무리가 보여. 나는 성훈에게 뛰자고 했어. 혼자라면 금방 군인들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훈이 때문에 힘껏 달릴 수가 없어. 성훈이 보폭을 맞추다 보니 달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삼촌이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고 했어. 한참 뛰다 보니 쫓아오는 군인도 총을 쏘는 군인도 보이지 않아. 성훈이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았어. 나도 주저앉았어.

“형, 정수 말이야. 살았겠지? 금방 병원에 데려가면 괜찮겠지?”

“그래, 괜찮을 거야.”

“형, 우리 과거로 온 거 맞지? 정수가 살았을 때 우리가 미래로 가버리면 정수 시간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처럼 오른발을 들고 정지했는데 다음 번에는 왼발을 들고 정지할 수 있잖아. 죽기 전에 정수 시간이 정지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형?”

성훈이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말했어.

“그래, 그렇겠다.”

정말은 성훈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단지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

“빨리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떨어졌던 곳으로 가기로 했어. 얼마 걷지 않아 철길이 나왔어. 우리가 떨어졌던 곳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돌아가는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아.

“기차에서 떨어졌으니까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아.”

“왜?”

“몰라, 자식아. 책에서 보면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 문이잖아.”

“맞아, 형. 그거야. 내가 떨어져서 정신 차려 보니까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고 있었어. 모퉁이를 돌 때는 기차속도가 느려지잖아. 형 똑똑한데.”

성훈이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자식이 머리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식은 내 머리가 좋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은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기로 했어. 우리는 철로를 따라 걸었어. 성훈이 기차선로에 귀를 대보았어. 내게도 대어보래.

“형, 들리지 쇠 우는소리.”

핏, 웃음이 나왔어. 가끔씩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저 소리는 영감들이 하는 소리잖아. 기차가 오고 있어.

우리는 뛰었어. 성훈이 뒤에서 젓 먹던 힘까지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기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우리는 겨우 맨 끝 객차에 매달릴 수 있었어. 성훈이 엉덩이를 밀어 올렸어. 순간 나는 기차 난간을 놓쳤어. 힘껏 뛰어 간신히 난간을

잡았어. 성훈이 나를 끌어올렸어.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선로를 바라보았어. 성훈이 객차 문을 열려고 해.

“기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현실로 가는 거지? 정말 정수의 시간에 도움이 될까.”

내가 말하면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훈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주문처럼 외웠어. 문을 열고 들어섰어. 에어컨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쏟아졌어. 눈이 번쩍 뜨였어.